

꼬마비의
AIDS 이야기

감염인 A 씨의 하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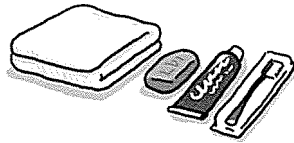
www.kkomabi.co.kr
www.aids.or.kr

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스크를 끼고
출근합니다. 가을이라기엔 더운 날씨지만



어쩔 수
없네요...

혼자 살고 있지만 화장실엔 항상
여분의 수건, 치약, 칫솔, 비누가 있습니다.
몇달 전에 만취한 친구가 놓쳐왔었는데
여분이 없어서 곤란했었던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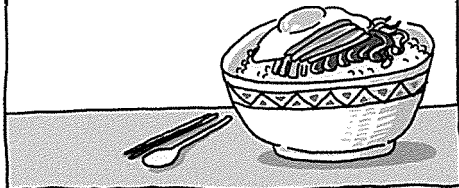
치과가 감염지였다는 기사를 읽은 후론
치과에 가질 못했습니다.



어렸을 때처럼 심도 뽑아보려 했지만
사탕이나 잘 안되네요.

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저이지만 따로
비빔밥을 주문합니다.

중국집 가서 다 "짜장" 하는데
"난 짬뽕" 하는 사람이라며
과장범이 놀립니다.



여저녁, 모기에 물려 화들짝 잠에서
깨어 창문을 닫곤 모기약 한통을
다 뿌렸습니다.



혹시나 날 문 모기가 다른 사람을
물면 안되니까요.

타인의 편견어린 시선보다
감염인 스스로의 편견에서 자유로워지세요

